

| 해양역사 |



통신사선도(이시자키 유시石崎融思 그림, 18세기 말-19세기)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과 해양사적 의미*

| 신성재 | 해군사관학교 교수
seong1970@daum.net

〈차 례〉

1. 머리말
2. 서남해 도서 해상세력의 동향과 존재 양태
3. 서남해 도서지방의 전략적 자산과 가치
4. 왕건의 도서지방 경략과 해양사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공예정권이 등장하던 900년 초부터 고려에 의해 후삼국이 통합되는 936년까지 왕건이 서남해상을 무대로 벌인 수군활동과 관련해서는 나주지역 및 서남해역을 둘러싼 후백제와의 해상권쟁탈전을 중심으로 왕건의 세력 성장과 해상세력 확보, 왕건의 서남해 經略 과정과 해상세력의 동향, 공예정권·고려·후백제의 수군운용 전략과 기술적 특

* 이 글은 필자가 『한국중세사연구』 51호(2017)에 게재한 동 제목의 논문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정책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로 축약·보완한 것이다.

징,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주목할만한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었다.¹⁾

이에 따라 왕건이 서남해상에서 벌인 수군활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세력의 대두와 역사적인 의미,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나주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경제군사적 위상과 가치, 궁예정권 및 고려와 후백제의 수군전략과 수군운용의 전술적 차이, 서남해안 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토착세력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주지역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상에 산재하였던 도서지방이 지닌 전략적인 자산과 그 가치의 중요성, 서남해 도서지방에 대한 왕건의 경략이 궁예정권 및 고려가 추진하고 있던 후삼국 통일전쟁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양사적인 안목에서의 적극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기왕 연구의 부분적인 미흡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왕건이 견훤과 해상권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였던 서남해상을 무대로 당시 그곳에 산재하였던 주요 도서지방에 대해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과 해양사적 의미’로 주제 삼아 검토해보고자 한다. 왕건이 벌인 서남해 도서지방에 대한 경략이 도서지방이 처해 있던 어떠한 상황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고, 후삼국 통일전쟁기 도서지방이 지닌 전략적인 자산과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나주 및 서남해안 지방을 대상으로 왕건이 벌인 수군활동과 그 해양사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유용하다. 姜鳳龍(2002),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歷史教育論集』 83 ; 姜鳳龍(2003), 「羅末麗初 王建의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 문안식·이대석(2004), 「왕건의 서남해 지역 경략과 토착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해안 ; 신성재(2011), 「후삼국시대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島嶼文化』 38 ; 김대중(2013), 「王建的 後三國統一과 羅州의 戰略的 位相」 『고려의 후삼국통합과정과 나주』, 景仁文化社 ; 정청주(2015), 「신라말·고려초 海上勢力의 대두와 그 역사적 의미」 『歷史學研究』 59 ; 신성재(2016),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 신성재(2018),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이를 근간으로 왕건의 도서지방 경략이 전쟁을 수행하던 군사 및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해서는 해양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 및 조선왕조에까지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서남해 도서 해상세력의 동향과 존재 양태

궁예정권과 고려, 후백제가 등장하던 신라 말 고려 초기는 진골귀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흐트러지고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豪族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이들은 신라의 통치체제가 완성이 되어 가던 9세기 후반대에 등장하여 자신들이 활동하던 지역과 지역민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自衛組織을 갖추고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주인공들이었다.²⁾

호족의 등장과 활동은 분립된 후삼국의 형세와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호족세력들이 해당 지역의 정치군사와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으므로 궁예정권·고려와 후백제는 이들의 동향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충청도와 경상도 내륙에 웅거하던 세력들을 비롯해, 전라도 서남해의 다도해 지방에 산거하면서 활동하던 세력들은 단연 주목되는 대상이었다.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수군활동을 벌인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 서남해 도서지방에 산거하던 해상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왕건이 珍島, 皐夷島, 壓海島를 공략하는 수군활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2) 신라 말 고려 초 호족에 대한 연구동향은 김갑동(1995), 「호족의 대두와 집권화 과정」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 윤경진(2002), 「고려초기의 정치체제와 호족연합정권」 『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 申虎澈(2002), 「호족의 종합적 이해」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참조.

梁 開平 3年(909) 己巳에 … 또 太祖에게 명하여 貞州에서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關榮 宗希와 金言 등을 부장으로 삼아 병사 2천 5백명을 거느리고 가서 光州 珍島郡을 치게하여 함락시켰다. 이어 梟夷島로 나아가니 城 안 사람들이 군용이 엄정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³⁾

위는 왕건이 909년에 휘하의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 남단에 위치한 진도와 고이도를 공략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다. 왕건은 진도와 고이도를 공략하기 이전인 903년에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에 진출하여 이 지역을 공취한 다음 군사적 거점으로 삼은 상태였다.⁴⁾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서남해에 산재한 도서지방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진도군에 대한 정벌을 후속한 것이었다.

왕건이 공략한 진도는 서남해역에서 비중 있는 위상을 차지하던 섬이었다. 왕건이 나주에 진출한 이후 진도를 첫번째 공략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서도, 이 섬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한 수군의 규모가 2,500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은⁵⁾ 전략적으로 꼭 확보해야 할 도서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진도를 공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해상세력과 지역민들의 대응 양상이다. 이들은 왕건이 공격해 함락시킬 정도로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태도는 진도의 해상세력과 지역민들이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과정에서 왕건의 공격에 저항하였고, 결국에는 항복하면서 공예정권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왕건이 이어서 공략한 고이도⁶⁾ 또한 진도와 마찬가지로 독자성이

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년.

4)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天復 3년 계해.

5) 후삼국전쟁기에 왕건이 거느린 수군의 규모는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3천명으로 원정군이 구성되었다. 이는 육상전에서 거느렸던 보기병이 3천명을 상회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볼 때 제법 큰 규모의 수군을 운용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6) 오늘날의 고금도로 보거나申虎澈(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67~68쪽 ; 한정훈(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53쪽 ; 정청주(2015), 앞의 논문, 43쪽.

강했던 것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고이도로 나아가니 성 안의 사람들이 (고려 수군의) 군용이 엄정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강력한 외부 세력의 침입에 타협하면서 지방사회의 존립을 모색해가던 이 시대 호족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왕건이 서남해안 지방으로 해상권을 확대해 가던 900년 초기, 도서 해상세력가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대체로 이러한 모습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지만,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린 위협 앞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정권에 귀속되거나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시대에는 특정 정권에 포섭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던 도서 해상세력도 존재하였다. 압해도(신안군 압해면 압해도)에서 자립한 能昌은 그 대표적인 도서 해상세력이었다.⁷⁾ 그는 수상전투에 능하다 하여 수달이라 불리었다. 그는 압해도와 인접한 葛草島⁸⁾에서 활동하고 있던 소규모 세력들과 결탁하여 왕건을 해치고, 왕건이 추진하던 서남해 도서지방에 대한 경략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能昌의 위세는 압해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강성한 수준이었다.⁹⁾ 수군활동에 조예가 깊었던 왕건조차도 그 위세를 의식하여 계략으로 사로잡았다고 하는 기록은 能昌의 군사적 위상을 짐작케한다. 왕건에게 사로잡힌 能

진도 서북방에 인접한 河衣島(日野開三郎(1960),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一)』 『朝鮮學報』 16, 54쪽, 압해도의 북쪽에 위치한 古耳島(文秀鎭(1987), 『高麗建國期の羅州勢力』 『成大史林』 4, 16쪽 ; 姜鳳龍(2000), 『押海島の 번영과 쇠퇴』 『島嶼文化』 18, 42쪽,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고하도로 비정하기도 한다(정진술(2014),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해양담론』 창간호, 목포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정책센터, 161~166쪽).

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년. 姜鳳龍, 앞의 논문, 2003, 348~349쪽. 이에 반해 견훤의 부하로 파악하거나(申虎澈(1993), 앞의 책, 31~32쪽, 원래 해적이었지만 당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해상호족으로 변신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權惠永(2006),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韓國古代史研究』 41, 316~329쪽).

8) 申虎澈(1993), 앞의 책, 67쪽.

9) 신성재(2016), 앞의 책, 36쪽.

창은 궁예에게 보내졌다. 궁예는 능창을 포섭하는데 실패하였던 것 같다. 궁예가 능창을 모욕한 뒤 참하였던 것은¹⁰⁾ 능창이 궁예정권에 포섭되기를 거부하고 독자성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도서의 해양지리적 위치와 특성, 정치적인 입장 등에 따라 특정 정권에 협력하면서 이들의 지배하에 공존을 도모해가던 세력가도 존재하였다. 서해 중북부 해역에 위치한 백령도와 包乙島(대청도)¹¹⁾에서 활동하던 해상세력은 궁예정권과 고려를 지지하던 주요 인적 기반이었다.

14년에 참소를 당하여 鵠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에 견훤이 海軍將 尙哀 등으로 大牛島를 공략하게 하였다. 태조가 大匡 萬歲 등을 보내어 구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 태조가 이에 근심하니 금필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바다 고을들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本島와 包乙島의 丁壯들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또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하게끔 하였으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하였다. 태조가 글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참소를 믿고 어진 사람을 내쫓은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사자를 보내어 소환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경은 실로 무고함에도 귀양을 살게 되었건만 일찍이 원망하거나 분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보위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상을 연장하여 경의 충절에 보답하고자 한다'하였다.¹²⁾

위 기록은 태조 14년(931) 3월에¹³⁾ 정치세력의 모함을 받아 鵠島(백령도)¹⁴⁾에 귀양을 가 있던 고려의 명장 庾黔弼이 서해 중북부 해역으

1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11) 신성재(2016), 앞의 책, 91쪽.

12)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13)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 太祖 14年 3월.

로 해상 침탈을 가해오던 후백제에 대응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도서민들을 동원하여 해상방어태세를 구축한 사실을 태조 왕건에게 상소한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930년대 백령도와 포을도는 고려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유금필이 백령도에 유배된 것 자체는 물론이고 그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도서민들을 규합하여 전함을 건조하고 군대에 충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섬들이 고려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이 두 도서지방이 어느 시점에 고려의 영향력하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892년 진성 여왕대의 상황을 전하는 居陀知 설화를 보면 새로운 해상세력으로 등장하는 거타지가 백령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토착세력의 도움을 받아 이 도서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이 설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⁵⁾ 이 새로운 해상세력은 선행 연구에서 고려와 연대하던 세력이거나 고려 왕조 자체로 추정되고 있다.¹⁶⁾ 이에 주목해보자면 백령도와 인접한 포을도는 890년대 후반 즈음부터 궁예정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보다 공고한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정권의 영향력하에 있거나 인접한 해역에 위치하고 있던 도서지방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해당 정권에 귀속되어 존립을 도모해가는 가운데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짐작케한다.¹⁷⁾

14) 鄭淸柱(199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16쪽.

15) 전기웅(2000),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陀知條’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38, ; 정연식(2012),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東方學志』 160, 참조.

16) 신성재(2016), 「나말여초 백령도와 유금필의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6, 227~229쪽.

17) 궁예정권·고려의 지배하에 있던 도서 이외에 후백제의 영향력하에 있던 도서지방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산 명마를 보낸 사례가 있는데(『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7년 8월), 후백제의 영향력이 부산 앞 바다의 절영도에까지 미치고 있었기에 방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 말 고려 초기 서남해 도서지방에는 다양한 세력 규모와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던 해상세력들이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독자적인 노선을 지향하며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강성한 군사적 위협 앞에 굴복하여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던 세력도 존재하였다. 해양지리적으로 특정 정권과 인접한 해역에 위치하였거나 애초부터 이러한 정권의 영향력하에 놓이기 쉬웠던 해상세력들은 현실의 지배를 수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활동하던 해상세력들을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에서 포섭하여 정권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삼는가 하는 문제는 서남해역 해상권 확보는 물론 후삼국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왕건이 나주를 공취하여 전략 거점으로 삼은 뒤 후속하여 서남해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수군활동을 벌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던 것은 도서지방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해상세력과 지역민들의 정치군사적 향배가 통일 왕조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인적·물적 자산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3. 서남해 도서지방의 전략적 자산과 가치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은 도서와 인근 해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해상세력들의 정치적 동향과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 고려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전쟁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후백제와 접경을 맞대고 있던 지역의 안정적인 방위력을 유지함은 물론 지배 영역의 확장을 도모해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목적은 왕건이 이미 나주에 처음 진출을

시도하던 903년 단계부터 모색되고 기획되었던 것 같다. 나주를 공취하던 당시 良州 지방에서 위기에 처해 있던 金忍訓을 구원하고 돌아온 왕건이 변경지대를 안정시키고 境域을 개척하는, 이른바 ‘安邊拓境策’을 건의하였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⁸⁾

왕건이 궁예에게 건의한 안변척경책에는 그 자신 스스로 나주를 공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경험한 해상 항로와 교통 조건, 지방사회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⁹⁾ 특히 오늘날의 양산으로 비정되는²⁰⁾ 양주지방에서 도움을 요청한 김인훈을 구원하기 위해 남해상까지 항해하여 수군활동을 벌였음을 감안하면²¹⁾ 원정작전 능력과 기술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는 서해와 남해상을 항해하면서 경험한 주요 도서지방이 지닌 전략적인 자산과 그 가치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당대 서남해 도서지방이 지녔던 전략적 자산과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우선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당시 왕건이 점령한 여러 도서지방이 서남해상에 대한 해상권 확보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궁예정권의 수군기지였던 貞州(풍덕)로부터²²⁾ 항해해온 왕건의 수군은 도서지방을 함선이 주둔 및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민들로부터 경제적인 조력 또한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남방 지방에 기근이 들자 왕건이 배고픔에 시달리던 衛戍 병졸들을 정성을

18)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天復 3년 계해.

19) 신성재(2016), 앞의 책, 31쪽.

20) 文暲(1979), 「王建太祖의 民族再統一의 研究」 『慶北史學』 1, 76쪽.

21) 주 19)와 같음. 해로가 아닌 남한강을 경유(河炫綱(1988),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27쪽) 혹은 육로를 통한 것으로 보기도하지만(金甲童(1985),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41쪽), 필자는 남해를 항해하여 구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22) 鄭淸柱(1996), 앞의 책, 113쪽.

다하여 구원하여 그 덕으로 모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914년 시점의 기록은²³⁾ 원정작전을 위해 정주로부터 수송해온 군량을 활용한 것도 있었겠지만 서남해 도서지방으로부터 조달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때 조달된 군량 중 일부는 군사들 외에 지역민들에게도 재공급되어졌음직하다. 결국 왕건은 서남해 도서지방을 교두보로 삼아 수군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후백제의 배후를 견제하기 위해 확보한 전략거점 나주를 순조롭게 왕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왕건이 이들 도서지방을 후백제 수군의 해상 공격을 방어하거나 해상권을 확대하는 전략거점으로도 활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유속이 빠르고 협수로가 형성되어 통항이 어려웠던 진도는 그러한 거점으로 활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과 전라의 貢賦는 모두 육상으로 수송하지 못하고 반드시 水運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지금 역적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珍島는 水程의 咽喉과 같은 요충인 까닭에 왕래하는 선박들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군량과 소의 사료, 종자를 징수하여도 운반할 길이 없다.²⁴⁾

위는 三別抄가 원종 12년(1271)에 반란을 일으켜 진도를 장악하자 개경으로 통하던 貢賦의 운송길이 막혔던 사정을 전하는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진도를 통항하는 해상교통로는 1270년 당시 조세와 군량, 종자, 우마의 사료 등이 운송되던 핵심 항로였다. 진도가 지닌 해상 교통적 측면에서의 이 같은 이점은 왕건이 수군활동을 벌이던 시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왕건은 진

2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乾化 4년 갑술.

24) 『高麗史』 卷27, 世家27 元宗 12년 3월.

도지방이 지닌 교통지리적인 이점을 현지민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직하다. 여수와 순천을 위시한 인근 남해안지방에 친후백제적인 성향을 띤 호족들이 활동하였다고 하는 견해에²⁵⁾ 주의하자면 왕건이 공취한 진도는 남해상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였을 친후백제적 해상세력들과 후백제 수군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거점으로 활용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진도는 고려의 수군이 남해안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해상권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거점으로도 활용되어졌음직하다. 왕건이 927년(태조 10) 4월에 파견한 고려의 수군장수 英昌과 能式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강주를 공략하였다고 하는 기록은²⁶⁾ 비록 뒷 시기의 사실이지만 고려의 수군이 남해안 방면에까지 해상권을 확대하였음을 입증한다. 아마도 이 시기 강주를 원정한 고려의 수군은 나주를 출발하여 진도를 거쳐 고이도에 잠시 머무른 다음 東進하여 공략을 감행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나주를 출발한 뒤 남해안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진도수역의 조수 시간대를 고려하여 이 섬을 중간 기착지도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러 가능성 속에서 주목되는 점은 왕건이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의 여러 섬들을 해상권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였으리라는 점이다.

왕건은 서남해 도서지방을 전쟁 수행에 소요되는 전략물자를 확보하는 거점으로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왕건이 주목한 전략물자는 말과 소금이었다. 실전에서 기병들이 운용하는 군마는 매우 중요한 전략물자였다. 기병은 평지와 험지를 막론하고 보병보다 뛰어난 전투력을

25) 鄭淸柱(2002), 「新羅末·高麗初 順天地域의 豪族」 『全南史學』 18 ; 姜鳳龍(2002), 앞의 논문 ; 邊東明(2004), 「金愬의 城隍神 推仰과 麗水·順天」 『歷史學研究』 22 ; 李道學(2006),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新羅文化』 2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참조.

2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0년 夏 4월.

발휘하기 때문에²⁷⁾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군마로 사용되는 상당량의 마필이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도서가 목마장으로 활용되었던 이유는 기후적 조건이 겨울철에도 춥지 않고, 목초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양호한 목축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⁸⁾ 특히 전라도 지역은 겨울철에도 춥지 않아 목마가 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牧馬場으로 적합하였다.²⁹⁾ 신라 통일기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목장이 한반도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운영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³⁰⁾

서남해 도서지방이 목마장으로 적극 운영되었던 실질적인 사례는 932년(태조 15) 예성강 수역으로 침투한 후백제의 수군이 고려의 전함들을 불살라버리고 猪山島에서 방목하고 있던 말 300필을 약탈해갔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³¹⁾ 또 견훤이 924년에 사절단을 왕건에게 파견하면서 絶影島에서 기른 말을 헌납한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³²⁾ 9세기 중반의 기록이지만 당나라에서 불법을 수확하고 귀국길에 올랐던 일본 승려 圓仁이 신라의 남계에 위치한 雁島를 왕실의 말을 기르던 섬으로 기록한 점이나³³⁾ 신라시대부터 재상가들이 海中에 우마를 길렀다고 하는 기록³⁴⁾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왕건이 통일전쟁에 소요되는 군마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남해 도서지방을 적극 활용하였음은 어렵지

27) 평지에서 기병 1기는 보병 8인에, 산악 지형에서는 보병 4인에 필적한다(『六韜』 卷6, 犬韜 均兵55).

28) 『世宗實錄』 卷33, 世宗 8년 8월 8일 기사.

29) 김경옥(2004), 『朝鮮後期 島嶼研究』, 해안, 68쪽.

30) 高慶錫(2005),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韓國古代史研究』 39, 219쪽.

31) 『三國史記』 卷50, 列傳 甄萱.

32) 주 17) 참조.

33)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 7년 9월 8일.

34) 『新唐書』 卷220, 新羅.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군마와 더불어 소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던 전략물자였다. 평상시 인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시에든 중요한 물자였다. 소금은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구제하는 약으로 여겨졌고, 출혈로 실신한 사람을 치료하거나 수술 후 생기는 상처의 치료제로도 널리 사용되었다.³⁵⁾ 이런 까닭에 일찍부터 소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삼국시대에도 각 지역이나 성에 소금창고(鹽庫)가 존재하였다. 후삼국전쟁기에도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는 존재하고 있었고, 비축해둔 소금은 군사활동에 적극 활용되었다.

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李憲言의 세계를 적은 기록은 이를 잘 말해준다. 기록에 따르면, 이충언은 신라 말기에 碧珍郡(경북 성주)을 수호하고 있던 호족이었다.³⁶⁾ 벽진군의 전략적 가치와 이충언의 인물됨을 눈여겨본 왕건은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합심하여 난세를 평정할 것을 설득하였다. 왕건의 의중을 파악한 이충언은 정토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왕건은 이충언이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를 本邑將軍에 임명하고 충주, 원주, 廣州(하남), 竹州(안성), 堤州(제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곡식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하사하였다.³⁷⁾

왕건이 이충언에게 하사한 소금 1,785석은 장기전에 대비하여 비축하던 전략 자산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왕건이 수군 활동을 통해 서남해 도서지방과 인근 해안지방을 공략하는 시기부터 꾸준히 확보하고 내륙의 전략거점으로 운송하는 항로를 개척하였음을 말해준다.³⁸⁾ 앞서 열거한 충주, 원주, 광주, 죽주, 제천 지방에 설치된

35) 새뮤얼 애드세드 지음·박영준 옮김(2001), 『소금과 문명』, 지호, 54~55쪽.

36) 류영철(2004),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75쪽.

37)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 附 李憲言.

38) 신성재(2016), 앞의 책, 101~103쪽.

창고가 한강 및 남한강 수로와 연결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은³⁹⁾ 해안지방과 도서지방에서 생산되던 소금이 해로와 내륙 수로를 따라 이송되어 보관되었음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4. 왕건의 도서지방 경략과 해양사적 의미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은 무엇보다도 해양사적인 차원에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해양으로부터 가져오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였다. 이는 서남해 도서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해상권 장악 노력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해상교통 보장이 정치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주지하듯이 왕건은 903년 나주지역을 공취한 이래 서남해 도서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⁴⁰⁾ 비록 후백제가 930년대에 이르러 나주지역을 6년 동안이나 점령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해상권을 상실당하기도 하였지만⁴¹⁾ 명장 유금필의 활약에 힘입어 935년에는 해상권을 다시금 장악하고 송악과 나주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주와 서남해 도서지방, 고려의 王都인 松嶽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왕건의 수군활동은 견훤의 정치적 망명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견훤이 막내 아들 能父, 딸 哀福, 애첩 姑比 등을 데리고 나주로 도망해와 입조를 청해오자 장군 유금필과 대광 萬歲, 원보 香父·吳淡·能宣·忠質 등을 보내어 군선 40여척으로 해로를 경유하여

39) 신성재(2011),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367쪽.

40) 신성재(2016), 앞의 책, 25~38쪽 및 84~112쪽 참조.

41)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후백제에게 나주지역을 점령당한 6년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성재(2016), 앞의 책, 107~109쪽 참조.

맞아오게 하였다”고 하는 935년(태조 18) 6월의 기록은⁴²⁾ 이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왕건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상권 장악 노력과 서남해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해상교통 보장 노력이 바닷길을 경유한 후백제왕 견훤의 망명을 가능케하였고, 후삼국 통일의 정치적 성과로 발현되었음을 말해준다.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전략은 후삼국 통일의 든든한 경제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인간의 삶에 있어 평화의 시기에도 경제적 비용은 늘상 발생한다. 그런데 전시체제하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산의 소요가 발생한다. 인력은 물론이고 물자의 수요 또한 그 규모가 월등히 크다. 이 같은 양상은 전쟁 초기보다 대결구도가 격화되어 가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왕건이 통일을 2년여 앞둔 934년(태조 17)에 禮山鎮에 행차하여 내린 조서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잘 묻어난다. 남자는 모두 군대에 나갈 정도로 병력 소모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고, 여자들 역시 부역에 동원되어 고통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도망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었다.⁴³⁾ 전란기를 살았던 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반영하는 사례지만, 당시에는 인력과 물자의 공급이 그야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왕건은 이러한 인적·물적 자산을 서남해 도서지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하였다.

14년(1388) 8월에 憲司가 상소하기를, “여러 섬에서 나오는 어염의 이익과 목축의 번성, 해산물의 풍요로움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神聖이 아직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수군을 다스려 친히 樓船을 타고 錦城에 내려가 그곳을 점령하니 여러 섬의 이익이 모두 국가의 자원으로 속하게 되었고, 그 재력으로 마침내 三韓

42)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년.

43)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7년 夏 5월 을사.

을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⁴⁴⁾

위는 1388년(우왕 14) 8월에 왜구의 침탈로 고려의 연해안 지방이 황폐화되어가자 憲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건의하였는데, 그것에 포함된 일부의 내용을 전하는 기록이다. 헌사가 올린 상소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 후기 도서지방은 국가의 통치와 경영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공간이었다. 특히 서남해 도서지방은 국정 운영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도서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와 소금의 이익, 말과 가축의 번성함, 해산물의 풍요로움이 평상시 국가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는 전시의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특히 소금은 병사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말은 기병들의 전투에 활용하던 자산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확보해야 할 전략물자였다.

왕건은 소금과 말로 대표되는 전략물자를 수군활동을 통해 꾸준히 확보하였다. 왕건이 아직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수군을 다스려 친히 樓船을 타고 錦城(나주)에 내려가 정벌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나주를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전략거점으로 삼는 한편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군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운용하였던 사정을 짐작케한다. 왕건은 이를 바탕으로 나주와 서남해 도서지방, 서해 중북부 항로를 거쳐 송악을 이어주는 해상운송망을 구축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전략물자의 가치에 주목하여 수군을 동원하여 이를 확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결국 이것이 후삼국 통일의 경제군사적 기반이 되었음을 시사해준다.

44) 『高麗史』 卷82, 志36 兵2 屯田 辛禡 14년 8월.

왕건이 도서지방을 경략하였던 경험과 수군활동은 통일 이후 고려 왕조의 조세운송 체계의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국초에 남도의 水郡에 12개의 倉을 설치하였다. 忠州에는 德興을, 原州에는 興元을, 牙州에는 河陽을, 富城에는 永豐을, 保安에는 安興을, 臨陂에는 鎮城을, 羅州에는 海陵을, 靈光에는 芙蓉을, 靈岩에는 長興을, 昇州에는 海龍을, 泗州에는 通陽을, 合浦에는 石頭를 설치하였다.⁴⁵⁾

위 기록은 고려가 건국 초기에 남도지방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12개 조창의 존재이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 수로와 연결되는 남도 지방의 여러 군들을 대상으로 조세 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倉을 설치·운영하였다. 창들의 정확한 설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가 국초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들 조창은 대체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서해와 남해 바닷길과 연결되는 연해안 주요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충주에 설치된 德興倉과 원주에 설치된 興元倉, 나주에 설치된 海陵倉의 존재이다. 이들 창은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수군활동을 벌이며 확보한 전략물자의 운송 거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국초부터 남도 지방에서 운영하였다고 하는 12개의 조창 중 일부는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재원을 확충하던 시기부터 개척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려 왕조가 훗날 60浦制를 근간으로 12漕倉制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⁴⁶⁾ 시원적이거나 왕건이 경략한 서남해 도서지방과 이를 연결하는 해로 및 수상교통망의 확보 노력이 그 기

45)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漕運. 고려는 남도 지방의 12개 水郡에 더하여 서해도의 장연현에 안판창을 설치하여 모두 13개의 조창을 운영하였다.

46) 한정훈(2009), 「고려 초기 60浦制의 실시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25, 131~157쪽.

반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추진한 경략활동이 통일 이후 고려 왕조의 조세운송시스템 구축에 근간을 형성하는데 가운데 국가의 재정운영과 지방 지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짐작케한다.

한편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경략하는 과정에서 벌인 수군활동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와 조선 왕조의 군선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음직하다. 왕건은 도서지방을 경략하는 초기부터 정주를 수군기지로 운영하였다. 그는 수군기지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하는가 하면⁴⁷⁾ 원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이 전함을 건조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舟舸 백여 척을 증치하였는데, 그 중 大船 10여척은 각 方이 16步요, 그 위에는 樓檣을 세웠는데 가히 말을 달릴 만하였다. 군사 3천여 명을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 羅州로 갔다.⁴⁸⁾

위는 궁예가 통치하던 말기에 왕건이 추진한 전함 건조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그 시기는 대체로 914년 이후의 일로 사료된다.⁴⁹⁾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건이 추가적으로 건조한 군선 100여 척 중 大船 10여 척의 존재이다. 이들 대선은 그 크기가 각 方이 16步이고, 그 위에는 樓檣을 세웠는데 가히 말을 달릴 정도였던 것처럼 장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근래에 미터법으로 환산한 견해에 따르면 이 선박의 길이는 약 31미터에 달한다고 한다.⁵⁰⁾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형 군선이었던 것 같다. 이 군선들은 비록 속력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선체가 높아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적병

4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년.

48)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乾化 4년 갑술.

49) 신성재(2016), 앞의 책, 87쪽.

50) 광유석(2012),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 37쪽. 오봉근(1998),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07쪽에서는 대략 17.5~35미터로 파악하였다.

이 기어오르기 어려울뿐더러 병력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전에서는 집중 사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⁵¹⁾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자를 운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정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마도 왕건은 전술적 효용성과 원정작전시의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대선들을 건조하였을 것이다.

왕건이 건조한 대형 군선과 운용 경험은 뒷 시기 고려의 군선 건조술에도 영향을 끼쳤음직하다. 고려는 현종대에 이르면서부터 동북면 해안지방으로 침입해오던 동여진족들에게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고려는 戈船 75척을 만들어 鎭溟口에 배치하는 등 이들의 침입에 대처하였다.⁵²⁾ 당시 고려가 배치한 과선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019년(현종 10)에 이들 동여진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일본 여인 石女가 기록한 증언에 따르면 고려의 군선은 선체가 크고 높았으며, 다량의 병장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를 뒤집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맹렬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선체의 구조는 2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위에는 櫓를 세웠다고 한다.⁵³⁾ 이 고려 군선의 실체를 왕건이 건조한 대선과 곧바로 등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박의 규모면에서나 동일하게 누노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현종대에 활약한 고려의 과선이 태조 왕건대에 건조하였던 대선의 형태와 구조적인 특징을 계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종대에 활약한 고려의 군선과 그 조선 기술은 대몽항쟁기에 압해도민들이 건조하여 대응한 것으로 나오는 大艦⁵⁴⁾과도 연관성이 있지

51) 임용한(2005), 「고려후기 수군개혁과 전술변화」 『軍史』 54, 279쪽.

52) 『高麗史節要』 卷3, 顯宗 즉위년 3월.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이창섭(2008), 「11세기 초 동여진 해전에 대한 고려의 대응」 『韓國史學報』 30, 91~104쪽 참조.

53) 「寬仁三年七月十三日 內藏石女等解申進申文事」(張東翼(2004), 『日本古中世日本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88쪽).

않나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고려가 몽고의 압력에 의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건조한 大船 300척에도⁵⁵⁾ 영향을 끼쳤음직하다. 나아가 이러한 대선 중심의 군선 건조술과 운용체제는 그 뒤 시기 조선 왕조의 대형 군선체제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 현종대 동여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석녀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여 고려 수군의 전통적인 특징을 대선중심주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⁵⁶⁾ 이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왕건이 건조하여 운용하였던 대선은 시기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현종대의 군선 건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이해는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경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조선술과 수군운용 경험이 고려 현종대와 대몽항쟁기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하겠다.⁵⁷⁾

요컨대 고려와 조선 왕조가 대선 중심의 군선을 건조하고 또한 이를 주력으로 해전을 수행하는 체제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배경에는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수군운용 경험이 제도적·기술적인 차원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⁵⁸⁾

54) 『高麗史』 卷130, 列傳 43 韓洪甫.

55) 『高麗史』 卷27, 世家27 元宗 15년 6월.

56) 임용한(2005), 앞의 논문, 276쪽.

57) 임용한은 고려전기 이래 대선 중심의 군선 운용이 고려 말기의 수군개혁을 거쳐 조선 왕조로 이어졌고, 임진왜란 승리 역시 대선 중심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선과 화기,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량한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임용한(2005), 앞의 논문, 301~302쪽).

58) 물론 여기에는 보다 앞선 시대인 통일신라시대의 왕성한 해상활동과 우수한 조선술, 뛰어난 항해술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확보하여 전략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상세력의 존재 양태와 정치사회적인 동향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후삼국간의 전쟁이 격화되어 가던 시기, 서남해 도서지방에서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춘 해상세력들이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강력한 외부정권의 영향력에 굴복하면서 연대를 모색하고 실리를 추구하던 해상세력들도 존재하였다. 해양지리적으로 특정 정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서지방에 산거하던 해상세력은 일찌감치 그 정권에 귀속되어 지지하는 입장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왕건은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회유를 통한 포섭을 시도하거나 강력한 수군력에 기초한 정벌을 통해 해상세력과 지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확보해 나아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남해의 주요 도서지방은 궁예정권과 고려를 지지하는 지방으로 변화되어 갔고, 이는 왕건이 서남해를 무대로 수군활동을 벌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왕건이 서남해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수군활동을 벌이면서 해상권을 장악하였던 것은 통일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도서지방이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왕건은 진도와 고이도, 압해도 등이 지닌 군사전략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이들 도서지방을 공취하여 해상권을 확대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특히 협수로가 형성된 진도는 남해안 방면으로부터 침투해오는 해상세력과 후백제 수군을 방어하는 길목이자 남해안으로 해상권을 확대하는데 있어 전략거점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왕건은 서남해 도서지방을 통일전쟁에 소요되는 전략물자를 확보하는 거점이자 공간으로 주목하였다. 당시 서남해 도서지방에서는 전쟁 수행에 소요되는 전략물

자인 소금과 군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현지민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왕건은 소금과 군마, 인력으로 대표되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공급하는데 있어 서남해 도서지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해양사적인 차원에서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견훤이 나주와 송악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경유하여 고려로 귀부해온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된다. 왕건의 도서지방 경략은 후삼국 통일의 경제군사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해양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쟁물자로 긴요했던 소금과 군마, 인력의 상당량이 도서지방으로부터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자산들은 모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전쟁에 인적 물적 기반이 되었다. 고려 말기에 현사의 관리들이 인식한 것처럼,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은 국가 자원의 확충을 가져오게끔 하였고, 확보된 자원은 후삼국 통일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졌던 것이다.

왕건의 도서지방 경략은 통일 이후의 조세운송시스템의 구축과 효과적인 국정운영, 지방지배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직하다. 전란기에 나주와 송악, 중간 해역에 위치한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운송체계는 내륙수로망의 개척과 물자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통일 이후 12개 중심의 조창제 성립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수군활동 경험과 대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술은 이어지는 현종대의 과선 운용과 대몽항쟁기의 대함 및 대선 건조술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조선 왕조에까지 이어지면서 선박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통일 이후 고려의 국정 운영과 수군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해양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新唐書』,
『入唐求法巡禮行記』, 『六韜』

2. 단행본

- 김경옥(2004), 『朝鮮後期 島嶼研究』, 해안.
- 광유석(2012),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
- 류영철(2004),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 문안식(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 신성재(2016),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 신성재(2018),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 새뮤얼 애드세드 지음 · 박영준 옮김(2001), 『소금과 문명』, 지호.
- 申虎澈(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 申虎澈(2002),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 오봉근(1998),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 張東翼(2004), 『日本古中世日本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鄭淸柱(199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 河炫綱(1988),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 한정훈(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3. 연구논문

- 姜鳳龍(2000), 「押海島의 변영과 쇠퇴」 『島嶼文化』 18.
- 姜鳳龍(2002),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歷史教育論集』 83.
- 姜鳳龍(2003), 「羅末麗初 王建의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 高慶錫(2005),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韓國古代
史研究』 39.
- 金甲童(1985),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 김갑동(1995), 「호족의 대두와 집권화 과정」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 김대중(2013), 「王建의 後三國統一과 羅州의 戰略的 位相」 『고려의 후삼국통합과정과 나주』, 景仁文化社.
- 權惠永(2006),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韓國古代史研究』 41.
- 文暲鉉(1979), 「王建太祖의 民族再統一의 研究」 『慶北史學』 1.
- 文秀鎭(1987),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 문안식·이대석(2004), 「왕건의 서남해 지역 경략과 토착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헤안.
- 邊東明(2004), 「金愾의 城隍神 推仰과 麗水·順天」 『歷史學研究』 22.
- 신성재(2011),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 신성재(2011), 「후삼국시대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島嶼文化』 38.
- 신성재(2016),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 신성재(2016), 「나말여초 백령도와 유금필의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6.
- 윤경진(2002), 「고려초기의 정치체제와 호족연합정권」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 李道學(2006),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新羅文化』 2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이창섭(2008), 「11세기 초 동여진 해전에 대한 고려의 대응」 『韓國史學報』 30.
- 임용한(2005), 「고려후기 수군개혁과 전술변화」 『軍史』 54.
- 전기웅(2010),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陀知條’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38.
- 정연식(2012),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東方學志』 160.
- 정진술(2014),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해양담론』 창간호, 목포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정책센터.
- 鄭淸柱(2002), 「新羅末·高麗初 順天地域의 豪族」 『全南史學』 18.
- 정청주(2015), 「신라말·고려초 海上勢力의 대두와 그 역사적 의미」 『歷史學研究』 59.
- 한정훈(2007), 「고려시대 13조창과 주변 교통로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23.

- 한정훈(2009), 「고려 초기 60浦制의 실시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25.
- 日野開三郎(1960),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一)」 『朝鮮學報』
16.